

稅 金이라는 말을 듣고 유쾌한 표정을 짓는 사람은 별로 없다.

특히 봉급 생활자의 경우는 收入源이 양성화 되어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하다. 그런데

했다고 볼 수 있다.

휘발유가격 인하에 따라 올해 예상 소비량을 기준으로 모두 7백31억원의 소비자 부담이 줄어 들고 국내 도매물가는 0.039% 인하 효과를 갖고 온다는 당국자의 설명이다.

결국은 국민 생활의 사치성이다, 자가용 승용차 증가 억제에 하는 制動裝置用으로 휘발유에 特別消費稅라는 이름의 세금을 붙여왔던 것을 조금은 늦춘 셈이다.

글쎄, 稅金과 휘발유값!

세금을 인하여 휘발유값을 내린다니 물가가 어느 정도 잡힐지는 모른다. 그러나 홍수처럼 늘어나는 자동차 행렬을 보고 있노라면 현기증이 난다기 보다는 自動車없는 하루살이 서민들에겐 步行權 마저 빼앗기지 않을까 우려된다.

그건 그렇고, 차제에 봉급 생활자에게도 세금 고삐를 좀 늦춰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아마도 봉급자의 탈세는 죽어서도 갚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稅라는 글자가 禾(禾)에 기쁨(兌)을 합한 글자로 원래는 많은 곡식을 거둬들인 기쁨으로 神에게 제사 지낸다는 뜻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中國인들이 그러는 이상향을 읊은 「桃花源」에 「가을이 무르익어도 왕의 세가 없다」고 한 것을 보면 이미 오랜 옛날부터 稅가 결코 기쁨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稅金과 휘발유 가격, 그리고 物價

굵어 모을줄만 알았던 稅金을 인하여, 정부는 지난 3월 27일 0시를 기해 보통 및 무연휘발유를 소비자가격 기준으로 현행 1당 4백2원에서 3백73원으로 7.2% 내리는 한편, 고급 및 군용 휘발유와 나프타 가격은 완전 자유화 하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물론 석유류제품의 자유화 조치가 이번만이 아닌, 이미 아스팔트나 항공유등이 자유화된 바가 있으나 消費者와 밀접한 油種을 稅金을 引下하여 가격을 내리고 自由化하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닌가 생각된다. 한편 휘발유값 인하에 따른 휘발유의 특별소비세율이 보통 휘발유의 경우, 현행 1백%에서 85%로, 무연휘발유는 85%에서 70%로 각각 15%씩 내려 6.7%의 휘발유값 인하 요인이 생긴 데다 유통수수료를 0.5%인하, 모두 7.2%의 인하 요인이 발생

李 洪 煥

〈호남정유 수송부 차장〉

“

物價를 안정시키기 위해 기름값을 내릴 바에야 차라리 産業연료의 근간이 되는 重油나 디젤가격을 인하하는 것이 물가에 미치는 과급효과가 크지 않을까? 휘발유값 인하조치는 물가억제 보다는 오히려 고급 승용차를 증대시키고 사치성 消費 造장만을 초래하는 結果가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

租稅라는 말은 옛날부터 있어 왔으나, 그 제도가 토호들의 私 經濟 收入시대와 봉건제도 아래의 특권수입시대를 거쳐서 국가 재정 수입의 기둥 구실을 하게 된 것은 근대 중앙집권국가가 확립된 이후의 일이다.

현대 資本主義국가를 經濟學에서는 조세국가라고 하거나 조세제도는 予算의 공개와 국민의 과세 승낙권을 전제로 하고 있다.

쉽게 말하자면 세금이 없을 수 없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고, 생활이다. 많은 사람이 세금을 달갑지 않게 여기고 있으나 우리나라가 租稅국가라는 것을 생각하면 돈을 많이 벌어서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은 그만큼 나라를 위해 많은 기여를 하는 셈이다.

살림이 넉넉치 못하면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을 시기하기 쉬운 것이 세상이라고 하나 부자가 되어서 나쁠 것은 없다.

모두가 부자가 되어 즐거운 마음으로 세금을 많이 낼 수 있다면 더욱 좋은 일이다. 애기가 좀 빛나간것 같지만, 物價를 두들겨 잡기 위해 휘발유값을 내린다는 이번 조치는 아무래도 실득력이 없는 것 같다. 物價를 두들겨 잡을 양으로 기름값을 내릴 바에야 차라리 産業연료의 근간이 되는 重油나 디젤가격을 인하 하는 것이 물가에 미치는 과급 효과가 크지 않을까?

휘발유값 인하 조치는 물가억제 보다는 오히려 고급 자가용 승용차를 증대시키고 사치성 消費 造장만을 초래하는 結果가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휘발유가격 인하 그리고 그 속에 잠재된 특소세 인하가 과연 물가에 어떤 함수관계로 작용될지는 두고 볼 일이다.

하기야 이 땅엔 아직도 「알라神」의 존재는 發見치 못하고 몰라神(?)만 있으니까 말이다.

